

양종희 “AI는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KB 대전환 선언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

고객·AI·효율·포용 전략 논의
AI에이전트 전면 도입 예고
“고객 삶 속 KB 존재해야” 강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또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의 삶 속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B가 항상 나타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객 중심의 영업 방식, 고객 관리 체계, 상품 및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금융환경하(下) 그룹의 레벨-업(Level-up)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KB금융 계열

사 경영진 270여 명이 참석해 고객과 효율, AI, 포용의 4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객 세션에서는 개별 계열사 관점이 아닌 그룹 관점의 고객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영진의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니어 고객 등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객군에 대한 그룹 공동의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효율 세션에서는 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상반기 경영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내 리더십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자본 효율을 고려한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AI 세션에서는 금융 AI 1·2 센터장이 그룹의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무 적용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실행 계획과 변화관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KB금

융은 PB 에이전트와 RM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영업 현장뿐만 아니라 본부 영업 및 관리 영역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이 AI를 실질적인 업무 파트너로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대한 그룹 차원의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포용금융부를 신설한 KB국민은행 등 각 계열사의 경영진들은 그룹의 포용금융 전략을 공유하고,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그룹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혁신과 AI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리딩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장과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전통시장부터 바캉스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KB국민카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과 함께 주요 카드사도 바닥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환경이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주요 카드사의 내수 살리기 전략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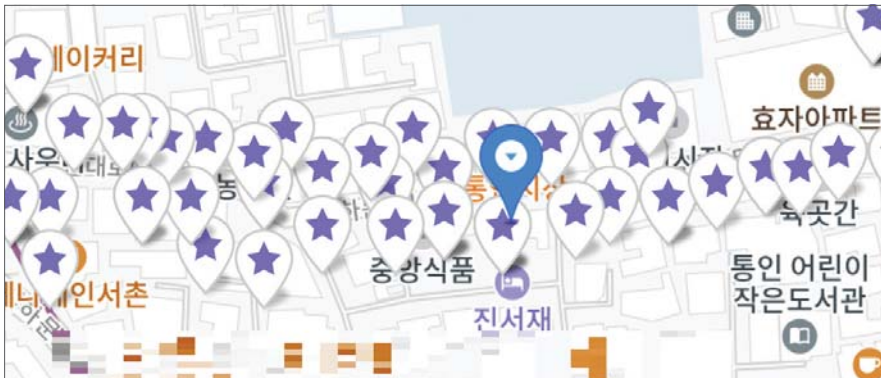
전통시장 특화 혜택 대폭 확대

국내외 여행 맞춤형 카드 출시

KB페이 연동 편의·플랫폼 강화

KB국민카드는 소비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결제 혜택을 추가해 디지털 분야도 강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KB 전통시장온누리카드’를 출시했다. 중소형 가맹점 할인 혜택을 골자다. 골목상권 매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 혜택은 ▲가맹점 이용할인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KB페이 쇼핑할인 등 3개 영역으로 구



KB페이 앱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통인시장 내 전통시장 가맹점을 표기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성했다. 신용카드는 최대 10%, 체크카드는 5%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때는 중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행사에 응모하고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777명을 추첨해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차감 결제 혜택은 카드를 사전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사용한 결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혜택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KB페이에 ‘지도(Map) 찾기’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면서, 전국 전통시장 위치와 가맹점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용처와

혜택 적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카드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폭증하는 명절에도 전통시장을 찾는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존 가맹점은 물론 착한가격업소까지 대상을 확대해 캐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가맹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한 고객 2025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여행 관련 혜택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내달 8일까지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철도 ▲버스 ▲렌터카 등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기프카드와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등 경품을 선물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 특화 상품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업계가 여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KB국민카드도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결제 예정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48.4%다. 이어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데 피로도를 느낀다고 판단했다.

KB국민카드는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KB국민 위시 트래블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해당 상품은 일상 영역 6곳에서 월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여행 영역 2곳에서 최대 2만 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제 수수료를 면제와 환율 100% 우대서비스도 기본 적용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분양 캘린더

셋째주 전국 6곳서 총 4098가구 분양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098가구(일반분양 31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플레이스풍무(1·2·3블록)’,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S1(공공분양)’,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AA24)’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브삼척’ 등 3곳이 개관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김포시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1~3단지에 ‘해링턴플레이스풍무’를 분양한다.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66가구 중 전용면적 74·84㎡, 6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4가구를 공급하며, 3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3개동, 전용면적 59·74㎡, 총 239가구를 조성된다.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풍무초, 양도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대형마트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총 1816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이 가깝다. 회룡나들목(2027년 개통 목표)을 통해 서부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직동근린공원과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등 단지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임종룡 “보험사 전문성·자율성 존중”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우리 윈 데이’

동양·ABL생명 편입기념 행사

“ABL생명과동양생명은우리금융이란 터전 위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됐다. 우리금융은 각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성장시키겠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우리 윈 데이(WON day)’에서 동양생

명과 ABL생명의 우리금융그룹 편입을 환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동양·ABL생명 대표와 영업 우수 직원 등 임직원 각사 160명, 그룹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121명 등 총 4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그룹사 직원간 친밀감·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목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키트 전달식, 우리금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ABL생명·동양생명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행했다.

임종룡 회장은 이날 동양·ABL생명 직원 대표 4명에게 그룹 사원증과 명

함, 휘장이 담긴 비즈니스 키트를 직접 수여하고 우리금융 합류를 축하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